

아프리카 표준화 기구와 협약

지난 12월 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표준화기구(ARSO) 총회에서 ARSO와 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기술정보 교환, 표준전문가 교류, 국제·지역기구 활동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표준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밝혔다. ARSO는 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다.

ARSO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역표준화기구로서, 케냐, 이집트, 카메룬 등 아프리카 29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표준, 계량, 인증, 기술규제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선 ARSO와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그 간,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인증정보 부족, 인증기준 불투명, 인증비용 과대요구, 인증시간 과대소요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해왔고, 더욱이, 이들 국가는 인증제도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별로 체제와 수준이 다른 유럽의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을 도입해와, 우리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번 MOU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지역 표준 및 기술규제 정보 등을 한 층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아프리카 지역 기술기준 조화 및 표준화제도 구축'을 위해 우리의 기술기준과 제도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는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MOU서명식에 배석한 케냐의 산업부 장관(Mr. Henry Kosgey)은 아프리카지역 무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표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와, 기술지원, 표준교육 등의 협력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아프리카지역을 자국의 안정적 자원 및 식량공급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기준 및 인증체계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험 및 인증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어, 우리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표준원은 내년부터 ARSO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표준협력사업은, 자원의 교류를 위한 입지강화, 사전 기술규제 대응,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과 수출 확대,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09.7월부터 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해 왔던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제도를 2011년 1월부터 환경부·소방방재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마크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소비자 혼란 해소 및 정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5개 부처 13개 법정업무

인증제도의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의무인증제도는 안전·품질·환경·보건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이다. '09년 7월, 10개 인증마크(지식경제부 9개, 고용노동부 1개)를 통합한데 이어, 추가로 나머지 3개(환경부 1개, 방송통신위 1개, 소방방재청 1개)를 통합하여 명실 공히 의무인증마크 통합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인증마크 통합은 세계 각국에서 WTO출범(93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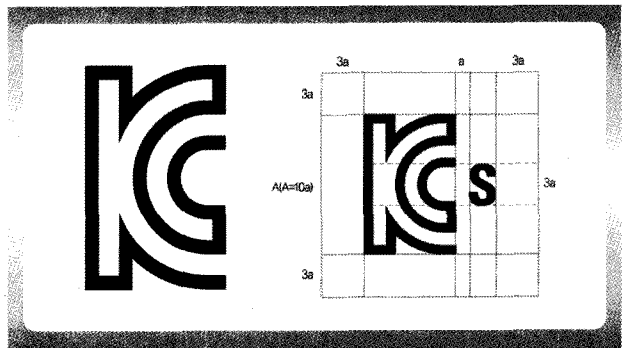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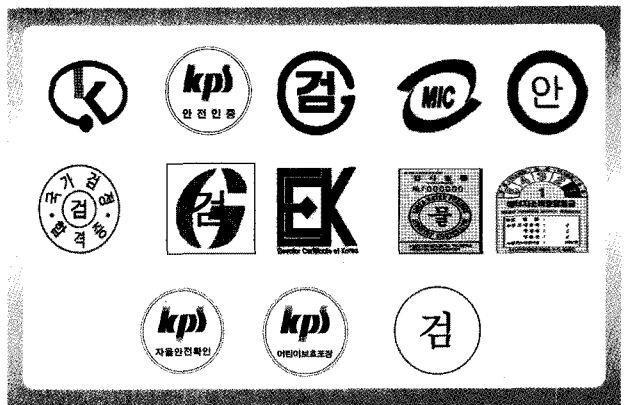
구 분	'09년 7월	'11년 1월
적용 인증마크 수	10개 마크 (지식경제부 9개, 고용노동부 1개)	13개 마크 (지식경제부 9개, 고용노동부 1개, 환경부 1개, 소방방재청 1개, 방송통신위 1개)
적용 품목 수	462개 품목 (안전 관련 422개 품목, 성능 관련 40개 품목)	562개 품목 (안전 관련 521개 품목, 성능 관련 41개 품목)
적용제품 사례	가전제품, 유모차, 체온계, 안전모, 건전지 등	(추가) 정수기, 소화기, 컴퓨터, 무선기기

국가 간 무역장벽이 사라지기 시작한 9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EU CE마크(93년), 중국 CCC마크(2002년), 일본 PS마크(2003년) 등이다.

우리 역시 2011년 1월 전면 시행으로 KC마크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관련 인증산업·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 부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는 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국제적 통합을 강조하고 워드 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시각적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 인증분야 부가표기 : 안전(S), 품질(Q), 환경(E), 보건(H)

마크	이름	분야	주관부처
	공산품 안전인증마크	유모차, 압력솥, 보행기 등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 마크	등산용로프, 건전지, 보안경 등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승강기부품 인증 마크	조속기, 완충기, 비상정지장치 등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안전인증 마크	전선, 전원코드, 청소기, TV 등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압가스용기 (검마크)	안전밸브, 압축기, 증발기 등	지식경제부
	어린이 보호포장	방향제, 세정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등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기기 인증	전화기, 모뎀, PC 등	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냉장고, 냉방기, 형광램프, 승용차 등	지식경제부
	품질검사필증 물마크	정수기	환경부
	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등	고용노동부
	가스용품(검 마크)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연소기 등	지식경제부
	계량기 검정마크	전기계량기, 체온계, 저울 등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소방용품 검정마크	소화기, 방염재 등	소방방재청